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 광야의 소리

## Voice in the Wilderness

3-4월호  
2017년



한인회소식

## 한인 여러분께

김영신

뉴멕시코 한인회장



안녕하십니까? 한인 여러분,  
뉴멕시코 한인회장 김영신입니다. 올해는  
봄이 일찍 오는 듯, 따뜻한 날씨가 저희의  
마음을 화창하게 만드네요. 이제 한인회장으로서 2년의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2년 동안이 다사다난  
했지만 여러분의 힘과 도움을 얻어 무사히 임기를 마치는 거 같아  
감사 드립니다.

많은 계획과 사명감을 가지고 회장에 임했고 최선을 다해  
실천하는데 노력했지만 뒤돌아 보니 미처 못다한 일들도 많은  
거 같아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취임하시는  
회장님께서 잘 이어 나가시리라 믿으며 한인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로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한인공동체가 되어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뉴멕시코  
한인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인사  
드립니다. ■

## 2017년 3-4월호 내용

- 표지 | 한인여러분께 | 김영신 : 1
- 한인회소식 | 순회영사/ 한인회장입후보소건발표 공고 : 2
- 한인회소식 | 한국학교소식 : 2
- 한인단체소식 | 어버이회소식/KOWIN소식 : 3
- 한인회장 입후보 소견 | 민명희 후보 : 4
- 한인회장 입후보 소견 | 문상귀 후보 : 5
- 지역사회 | 지역사회 최근소식 : 6
- 칼럼 | 동네교회 | 김기천 : 8
- 수필 | 겨울- 눈 | 이정길 : 9
- 생활상식 | 페이스북은 어떤 것인가? : 10
- 생활상식 | 행복한 미국생활 #11 (메디케어) : 12
- 생활상식 | 말썽꾸러기 암 덩어리 #2 | 김준호 : 14
- 성경공부 시리즈#3 | 에베소서 2장 | 현용규 : 15
- 광고 | 뉴멕시코주 한인교회 안내 : 17
- 광고 | 뉴멕시코주 한인업소 : 18

## 17대 한인회장 후보 소견발표회 3월8일 (수) 12:30pm

뉴멕시코 한인회를 위해서 2017년 4월 1일부터 2년 임기동안 봉사할 한인회장 선거에 임해서 민명희씨와 문상귀 씨가 입후보로 등록하였습니다.

3월 8일 12시30분에 두 후보들의 합동 소견 발표회가 한인회에서 열립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두 후보들을 만나보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6대 한인회장선거 투표일시 3월11일 (토) 10am-4pm

투표장소: 한인회관 KANM,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505) 271-1777

당선자 발표 및 소감 발표: 투표/검표 후 오후4시 이후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새회장의 당선을 축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선거관리 위원 : 최영혜, 이옥주, 최진

위원장 : 신광순

E-Mail 주소 : ichibanrestaurant@msn.com

한인회 웹사이트: www.kaanm.com

## 2017년 원거리 상반기 순회영사

주LA총영사관은 뉴멕시코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민원편의를 위해 2017년 상반기 순회영사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 순회영사업무시 여권, 가족관계등록(출생·혼인·이혼·사망), 국적(상실·이탈), 병역(국외여행허가), 공증(위임장 등 영사확인), 재외국민등록(등록·등본발급), 사증(한인만 신청 가능), 신원조사 증명서 신청 등의 민원업무를 접수·처리

2. 실시일정 및 장소 : 3월23일 목 10:00-14:00

● 뉴멕시코한인회관: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3.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 김영신 한인회장 505-321-7695 yongfre@yahoo.com

● 민원업무 내용 등 문의 :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순회영사실

- 이메일 : consul-la@mofa.go.kr

- 전 화 : 213-385-9300, 내선번호 15 또는 52

## 한국학교소식

박영신  
한국학교 교장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봄날입니다. 뉴멕시코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학교 교장, 박영신입니다. 이번 봄학기에는 학급이 늘어 성인반은 5개, 아동반은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학기에 이어 재 등록한 학생이 전체의 88%로 이는 한국학교 수업에 만족도가 높다는 의미라 생각하며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늘어난 학급 수만큼, 이번 학기부터 2명의 선생님께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신 김소윤 선생님께서 휴스턴 공관 소속의 한글학교에서의 경험과 실제 교사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베테랑 선생님께서 수업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한국학교 수업이 다양하고 재미있게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현재 UNM 에서 TESOL 과정을 공부하고 계신 전경화 선생님께서 영어를 가르친 경험이 한국어 가르치는 분야와 잘 접목되어 이해하기 쉬운 수업을 이끌어 나가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학기를 맞아 한국학교를 이끌어가는 교장으로서의 저의 목표는 소통입니다. 소통이란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는 뜻입니다. 저희 한국학교가 속한 뉴멕시코 한인회와 학부모님, 그리고 저희 학교 선생님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한국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소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새로 오신 선생님들과 기존의 선생님들이 협력하여 일관성 있는 커리큘럼을 구축하려 합니다. 일관성 있는 수업이란 전체 학교 수업의 흐름과 방식을 통일하는 것으로 공부의 맥이 끊이지 않는 수업이며 그 동안 다양하게 다루어져 왔던 선생님들의 수업 방식과 아이디어,







##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

박광중

뉴멕시코 KOWIN지회장



코윈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의 연중행사인 김치바자회가 1

월 27일, 28일에 있었다.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의 힘든 과정이었지만 코윈 회원 한분도

불평하지는 분들이 없었다. 가족과 사회에서

버림받고 새 생활을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주고 싶은 마음으로

배추를 다듬고, 절이고, 씻고, 속을 만들고 넣는 과정 하나

하나에서 삶의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웃음꽃 또한 피울 수 있었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다들 아프신 어깨와 허리 여기저기

동여매시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잊어진 사람들을 위해 김치를

만드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한국음식이 좋아서

한국김치가 좋아서 항아리까지 샀다는 미국인 김도 김치를

만드는 법을 알고 싶다고 참여하면서 너무나 많은 준비와 정성이

들어가는 것에 놀라와했다. 하지만 좋은 일에 자신도 참여하고

싶다며 내년 김치바자회 때도 다시 불러 달라며 힘든 내색

하나없이 미소를 머금고 자리를 떠났다.

어르신들이 한국의 어려운 시절을 얘기하시면서 가난하고 못사는

시절이었는데도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중에서도

남들에게 베푸는 인심과 배려가 미덕이었다는 말을 들곤 한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남보다는 자신의 이득과 편안함이 우선인

요즘시대에 어르신들의 연륜의 지혜속에서 말씀하시던 인심과

배려를 정성껏

김치를 만드는

회원님들의 모습에서

보았다. 김치 70병을

만들고 힘들고 지친

모습이었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 모습이 어느것보다 귀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좋은 일에 쓴다고 기꺼이

김치를 사주신 한인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코윈은 한인여성단체로 한국정부기관인 여성가족부산하에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 지역사회의 특징을 살려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이다. 많지 않은 숫자지만 뉴멕시코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차세대 여성리더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과 한국문화와 한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자 한다. 3월 21

일에는 로날드 맥도날드 게스트 세프로 타주에서 온 환자들의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대접하는 봉사를 할 계획이며 정보세미나,

교육세미나, 건강세미나, 가정폭력피해여성과 그 자녀들을 돕기

위한 여러가지 자선활동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차세대 교육과

지역사회에 남다른 봉사정신과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코윈의 회원으로 모시고 싶다. ■



자료를 하나로 모아 탄탄한 수업으로 더 경쟁력을 갖춘 학교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인회를 비롯한 한인사회의 많은 관심과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며 또한 선생님들의 그런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한인회와 학부모님과의 소통을 꾸준히 시도하고 연결하는 것이 저의 자리라 생각합니다. 더 발전하는 한국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한인회를 비롯한 뉴멕시코 한인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 한인회 어버이회소식

## 안녕하세요. 윤태자입니다.



2017년도 어느덧 입춘이 지나 살구꽃 자두꽃이 피어나는 파스한 봄이 되었습니다. 윤태자 어버이회 회장 어버이회에 회장으로 봉사한 지 벌써 2년이 되어 임기를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부족했던 점도 많고 좀 더 인력이 보충되어 다양한 행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새로 오신 회원분들도 계시고 기존 회원분들도 계시지만 점점 연세 드시는 어버이 모임에 젊은 봉사자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임원으로는 윤진옥 씨와 애나 씨가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봉사하시리라 믿습니다. 통역과 번역을 매달 첫 주 수요일에 봉사해 주시는 김미경 씨, 격주로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며 설명해 주시는 이정길 명예 교수님, 핸드폰 사용법을 어버이들께 설명해 주신 UNM 유학생 박장한 씨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들어 이찌반 식당, 김영신 회장,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교회 손말레 씨, 코윈단체에서 음식을 후원해 주시거나 봉사해 주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많은 단체와 개인이 기부하시고 후원해 주시고 봉사해주셨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알기에 지면으로나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 2년을 어버이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엘버커키에 살면서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기에 그 사람들의 선행으로 행복 바이러스에 전염되어 살 맛이 났습니다. 봉사하려고 시작한 게 오히려 많은것을 받고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후원자와 봉사자들로 인해 한인회 어버이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며 임기를 마칩니다. 감사 합니다. ■

# 뉴멕시코주 17대 한인회장에 출마한 민명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멕시코 한인 여러분,

**열린 한인회, 보살피는 한인회, 품격을 높이는 한인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 17대 뉴멕시코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한 민명희입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한인회 이사과 부이사장직, 그리고 카톨릭 공동체 회장직을 맡아왔습니다. 회원분들을 위해 일하고자 노력했던 그 기간동안, 저는 순수한 봉사정신에서 우러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하기까지 많은 숙고를 거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출마를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인회장으로 당선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뉴멕시코에 거주하시는 모든 한인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열린 한인회**를 만들겠습니다. 저희 열린 한인회에서는 **한인회관**을 교민 여러분께 개방하여 교육/문화/오락 활동이 가능한 **종합 복지**의 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개정**을 통하여 총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회원과 한인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 조건도 획기적으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 언론매체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사이버 한인회를 활성화함으로써 한인 여러분과의 소통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뉴멕시코 여러 한인단체 그리고 지역단체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화합과 연대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멕시코에 거주하시는 모든 한인 여러분들을 **보살피는 한인회**를 만들겠습니다. 보살피는 한인회에서는 어버이회를 활성화하여 생활/컴퓨터 강좌 프로그램과 무료 정기 건강검진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한미 정부조직/기업들의 스폰서쉽을 통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스포츠 분과 증설 등의 한인회 조직 개편을 통하여 뉴멕시코 거주 **한인들의 복지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총영사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업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멕시코 거주 한인들의 **품격을 높이는 한인회**를 만들겠습니다. 품격을 높이는 한인회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말을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는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뉴멕시코 지역 내 대학에 한글 강좌 개설을 통하여 우리말과 문화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치축제, 초청강연, 그리고 공공시설내 한글 안내문 소개등, **한인의 위상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 재무/사무 감사 및 공개를 통하여 한인회의 **건전한 재정 관리와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뉴멕시코 한인 여러분,

저는 제가 가진 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제가 한인회장에 출마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한인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격려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한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임기를 마친 2년 후에 “열심히 했다”는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멕시코 한인회장 후보 기호 1번 민명희 ■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Mi Kyong Kim**  
Mortgage Banker  
NMLS #512561

**BANK OF ALBUQUERQUE**  
MORTGAGE

3900 Vassar Dr NE  
Albuquerque, New Mexico 87107  
www.bankofalbuquerque.com/mikyongkim  
E-Mail mkim@bokf.com  
Direct 505.855.0586  
Mobile 505.379.2944  
Fax 505.855.7301



**김미경**  
주택융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뉴멕시코주 17대 한인회장에 출마한 문상귀입니다.



뉴멕시코주 한인회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대 한인회장에 출마한 문상귀입니다. 저는 이번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주위의 권유와 한인회의 앞날을 위해서 출마의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명예를 위하거나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뉴멕시코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저의 지난 30여 년간의 단체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을 내놓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뉴멕시코 한인회는 다른 지역 한인회보다 규모 면이나 숫자상으로 작은 커뮤니티입니다. 작은 커뮤니티라는 것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단체라는 것 아닐까요? 따라서 저는 이번 한인회장에 당선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한인회에 봉사하려고 합니다.

## 첫째로, 소통과 화합하는 한인회로 만들겠습니다.

한인회관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누구나 참여하는 한인회, 교민 여러분이 주인인 한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단체들과도 함께 참여 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을 위한 소모임(바둑, 장기, 음악, 요리, 가족모임 등등)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한인회의 참여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대보름 잔치와 동포 대잔치도 더욱 성대하게 계획해서 실천하겠습니다.

## 둘째로, 봉사하는 한인회로 만들겠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핫라인을 개설하겠습니다. 장보기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장 바꾸기, 갑작스레 병원을 가야 하는 분들을 위한 수술, 불우 이웃 돕기, 법정 통역 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인회 연례행사로 되어있는 모든 행사는 더 활성화하여 맥이 끊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회와, 한국학교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어버이회는 복지증진에 힘을 다하며 야유회와 효도관광을 확대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학교는 자녀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프로그램 개발과 모국연수 등을 계획하고, 교사들에게는 교사 연수 및 모국방문 교사체험학습에 참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국에는 주류사회에 진출해 있는 훌륭한 한인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인재들을 이 지역 한인들과 접목해 차세대 리더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깊이 고민하며 그 부분을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셋째로, 체계적이고 신뢰받는 한인회로 만들겠습니다.

불합리한 정관을 즉시 개정하고 총회를 통해 인준을 받을 것이며 한인회의 회계연도와 회장의 임기 시작을 현재의 4월에서 1월로 바꾸어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 주변의 타 단체와도 보조를 맞추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총회는 매년 개최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한인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민 여러분!

여러분 한분 한분이 가진 능력을 하나로 모을 때 엄청난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인회는 몇 사람이 이끌어 가는 단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인일 때 조직의 힘이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다시금 한인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면 동네 이장의 마음으로 뉴멕시코 한인회를 반석 위에 세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Lunch**  
11:30-2:30 Mon-Sat

**Dinner**  
5:00-9:30 Mon-Thur  
5:00-10:00 Fri-Sat  
12:30-8:00 Sunday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www.abqsushiandsake.com](http://www.abqsushiandsake.com)



##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lorientalmarket.com](http://www.al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https://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 조규자 전 한인회장 대통령 표창

조규자 전 뉴멕시코주 한인회장은 지난 1월 20(금)일 캘리포니아 부에나파크 소재 로스 코요테스 컨트리클럽에서 민주평통 오렌지 샌디에이고 협의회(회장 권석대) 주최로 열린 '통일 강연 및 신년하례식'에서 이기철 LA 총영사와 권석대 협회장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 경위는 30여 년간 뉴멕시코 라스크루세스(Las Cruces) 지역에서 초중고생들에게 매년 10,000불에서 15,000불의 장학금과 후원금을 지원해 온 연유다. 7년 전부터는 '나의 꿈 국제재단' 부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차세대 한인 대학생들에게 4년간 매년 1,000불씩 장학금을 후원해 왔다. 최근에는 미주 총연 25대와 26대를 재무 부회장으로, 오렌지 샌디에이고 평통 뉴멕시코 분회장으로 한백회와 미주 한인상공회 멤버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에 이민 온 후 27년간 우체국에서 근무 시험관으로 정년퇴직하고 현재 캘리 어카운팅을 23년째 경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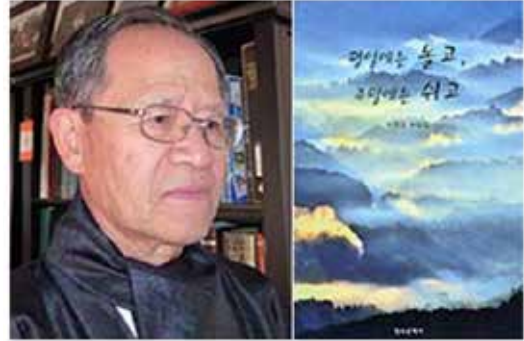
## Lowe's Call Center에 500명 일자리



로우스(Lowe's)가 알버커키에서 확장되는 고객 전화 서비스 센터(Call Center)에서 일하게 될 정규 직원 500명을 2월부터 10월까지 채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알버커키 저널의 2월15일자 기사 "Lowe's to add 500 jobs in ABQ"에 의하면 지원자의 자격요건은 고졸이상이면 되고 1년정도의 고객 서비스 경험이 있으면 더 좋다고 했다.

Lowe's는 알버커키에 6개의 소매점을 갖고있으며 미국내에 만도 2355개의 소매점을 갖고 28만 5천명을 고용하고있는 회사로 Home Depot다음으로 큰 주택개선 용품 소매점 회사이다. Jefferson & Osuna에 있는 고객지원센터에 이미 600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Call Center 확장 계획으로 500명을 더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한다.

## 이정길 명예교수 수필집 발간



“광야의 소리”에 2009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수필을 기고해 주시고 계신 이정길 명예교수께서 최근 수필집 ‘평일에는 놀고, 주말에는 쉬고’를 발간했다.

이 수필집은 이정길 교수께서 정년퇴임한 뒤 수필가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느낀 소회를 정리한 글을 엮은 책이다. 이정길 명예교수는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40여 년간 봉직한 뒤 지난 2007년 퇴임했으며 알버커키로 이주하셨고 2012년 미주문학 수필 신인상 수상으로 등단했으며,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다.

## 알래스카항공: ABQ-오렌지카운티 직행 노선 운항



알래스카항공(Alaska Airlines)은 알버커키와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간에 직행 노선을 올 여름 8월18일에 신설한다고 지난 2월1일 발표했다.

알버커키와 포트랜드(Portland)간 직행 노선 역시 8월에 추가된다고 발표한바 있는데 또하나의 직행 항공 노선이 열리게 된 것이다. 알버커키에서 LA지역에 있는 샌타야나, 애너하임, 어바인 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LAX공항보다 교통이 편하고 조용한 오렌지 카운티의 존웨인 공항을 이용하는 알래스카 항공 노선이 더 애용될 가능성이 크다. ABQ 공항에서 출발 시간은 매일 12:25p.m.이고 귀향 노선으로 오렌지카운티에서 출발시간은 2:15 p.m.으로 잡혀있다.



## 뉴멕시코 지역사회 최근소식 (1월-2월)

(광야의 소리 페이스북에 올렸던 뉴스 모음)

### 이기철 총영사 뉴멕시코 주지사 예방



이기철 총영사는 2월9일(목)-10일(금) 양일 간 뉴멕시코주를 방문하여 Susana Martinez 주지사와 면담을 갖고, 뉴멕시코주 학생들에게 한국 알리기 사업과 한국-뉴멕시코주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적극 추진기로 합의하였다.

### 이기철 총영사 동포간담회와 한국전 참전용사 예방



이기철 총영사님과 교포간담회 2017년2월9일



이기철 총영사와 한국전 기념비 앞에서 2017년2월9일

### 한인회 정월대보름 잔치



뉴멕시코 한인회에서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2월 11일(토) 오후 5시 30분 Jewish 커뮤니티 센터에서 교민 85여 명과 아리조나주 직장인 밴드 '민주 불황당' 포함 14명이 함께 어우러져 정월 대보름 잔치를 열었다.

아리조나 타임즈 장재원 대표의 사회로 진행했고 김영신 한인회장은 여러분의 도움에 감사하면서 "메트로 PCS wireless phone 박종석 사장님이 이 잔치를 위해서 2천 불을 후원해 주심에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라고 인사했다.

### 한국전 베테랑 회장 소천

한국전쟁 베테랑 협회 회장 Jerry Chapman 씨께서 향년 82세로 2월 4일 새벽에 돌아가셨다. 차프만씨의 메모리얼 서비스가 4월 22일, 오전 11:30에 Veterans Memorial Park에서 있을 예정이다. (사진: 오른쪽-제리 차프만 씨)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New Mexico Properties



**Yong Shin Kim**  
 Associate Broker / REALTOR®  
 Fluent in English & Korean  
**Cell: (505) 321-7695**  
**Email: yongfre@yahoo.com**  
 6739 Academy Rd. NE, Suite 200  
 Albuquerque, NM 87109  
 Office: (505) 888-1700

A member of the franchise system of BHH Affiliates, LLC. Equal Housing Opportunity.

## 동네교회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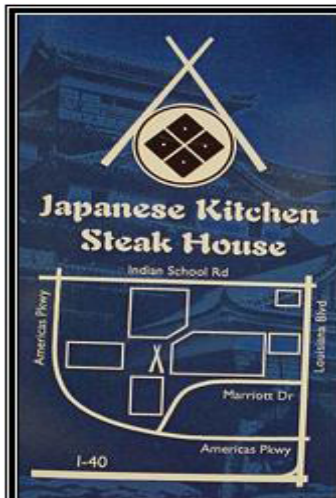
어디 멀리 가려고 해도 버스나 기차를 타야 했던 60년대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천에 살았지만 자가용이라는 것은 별로 본 기억이 없습니다. 웬만한 거리는 걸어서 가야했고 조금 멀다고 하면 자전거 정도를 타고 가던 시절이었지요. 이때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모여드는 곳이라고는 주로 학교나 교회였습니다. 시장터야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이기에 공식적인 장소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규칙적으로 자주 사람을 만날 수 있던 장소는 가정 외에는 학교나 교회였습니다. “직장, 공장”도 있었지만 않았나요? 있기는 있었지만 그런 곳은 모두가 돈과 연관된 장소였기에 좀 구별해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런 구분을 페르디난트(Ferdinand Tönnies)와 같은 사회학자는 “이익사회, 공동사회”로 구분했지요.

어릴 적 저에게 교회는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물론 학교도 공부를 목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사실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도 하고 방과 후에는 함께 놀러가기도 하고 하면서 우정을 다졌던 좋은 장소였지요. 지금도 옛날의 친구들이 그림기만 합니다. 교회친구들 또한 특별했습니다. 당시 제가 다녔던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남학생들만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가야 여자 학생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지요. 교회 안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불문하고 중학생은 모두 중등부에 고등학생은 모두 고등부에 소속했습니다. 저도 중등부 시절을 생각해 보면 학생들끼리 임원회를 조직해서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지도력을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 학생부 대표들을 만나서 교회대항 체육대회를 추진하면서 공문서 쓰는 법, 잘 교섭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고등부 때부터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교수법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또한 고등부 때부터 성가대에 가입해서 음악을 몸으로 익히기 시작했지요. 사실 학교 음악시간에 배운 것보다 더 많은 시간에 교회 성가대를 통해서 음악을 배운 셈입니다. 고등부 때에는 문학의 밤이라는 것을 하면서 각본을 쓰기도 했고, 연극 주연배우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참, 국민학생들은 모두가 교회 주일학교에 소속했습니다. 요즘은 “국민학생”이라고 안하고 “초등학생”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여름만 되면 주일학교에서

“여름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여름성경학교에 개근하기 위하여 새벽부터 일어나서 교회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침부터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 마당에 모여 노래를 부르면서 여름성경학교를 시작했고 이어지는 행사에 참여하면서 모두가 즐거워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모태신앙이니까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동네 교회가 곧 나의 우주이며 나의 모든 것이었지요.

당시 제가 살고 있는 동네, 학교, 교회가 나의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만큼 세상이 좁았었습니다. 바깥세상 소식이라고는 기껏해야 라디오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와 TV 뿐이었지요. TV조차도 흑백에서 칼라로 전환되던 때라서 가격이 비쌌고, 있는 집에서나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 뉴스라고 하면 직접 만나서 주워듣는 소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활동 영역은 그저 발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친구 집이나 교회 같은 장소 또는 버스통학으로 가던 학교가 전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버스나 기차를 타고 가야하는 다른 지방은 안 가본 사람들에게는 먼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통이 발달되어 어디든지 원하는 곳을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통신도 크게 발전이 되었지요. 이제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상상이상으로 크고 넓게 확장되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우주 개발, 소림자 발견, 컴퓨터 통신 개발 등은 앞으로도 인간의 영역을 놀라운 정도로 확장시킬 것입니다. 이와 같이 끝을 알 수도 없는 광야와 같은 세상 한 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광야 한 복판에서도 마음 한 구석에 여전히 자리잡고 있는 조그맣고 소박한 동네교회를 생각하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그 동네교회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시리도록 그리워집니다. ■



### Japanese Kitchen

제페니즈 키친

일본인이경영하는 일식 정통집

일본 정식 (5코스:30분, 6코스:40분, 8코스:50분)

모듬정식(벤토), 해물우동, 튀김 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콩치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 야끼전문, 고기종류와 해물 외 다수

[www.japanesekitchen.com](http://www.japanesekitchen.com)

Phone: (505)884-8937, (505)872-1166

6521 Americas Parkway NE ABQ





## 겨울 - 눈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마지막까지 버티던 마른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어오면, 불일 곳을 잃은 사람의 마음이 스산해진다. 사철 중의 마지막 철인 겨울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한 해의 나머지를 생각을 떠올린다. 양력으로는 12월부터 2월까지, 절기로는 입동부터 입춘까지, 천문학상으로는 동지부터 춘분까지가 겨울이다. 낮이 짧고 밤이 긴 그 기간은 연 중 가장 추위, 차가워진 대지가 우리를 극단으로 몰고 간다. 하지만 겨울은 신비 고요 청결함 아름다움 행복감 따위를 골고루 맛보게 해주기도 한다.

동물들은 추위를 겨울털로 이겨내기도 하고, 겨울잠으로 견뎌내기도 한다. 추위는 생물이 마주 해야 하는 가장 무섭고도 오래된 적이지만, 보리나 유채 등의 겨울 작물은 찬 기운에서라야 제대로 생육한다. 어느 때 어느 철에도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대자연은 겨울에 혹독한 추위만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계절의 순환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러기, 두루미, 백조를 감상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실내에서 식물을 풍요히 즐길 수 있겠는가.

옛날 사람들은 한겨울의 심한 추위를 잘 견디는 소나무 대나무 매화나무를 함께 묶어 세한 삼우라고 부르며 가까이했다. 소인 묵객들이 특히 좋아하는 이들 나무 중에 매화나무에서는, 추위를 꾸어다 가라도 한다는 선달 초순의 소한 즈음에 꽃이 피어 못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 그때가 양력으로는 1월 초이어서 새해를 맞아 가장 먼저 핀다고 제일화라고도 부른다. 서양에는 없는, 한중일 3국만 공유해온 꽃. 앞질러 피어 봄을 선도하는 매화는 유교에 뿌리를 내려 절개, 금욕, 유교적 인품, 학문 등을 상징한다. 계절의 특이한 정경인 하얀 눈을 떠오르게도 한다.

겨울의 눈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겨울이면 자연이 높은 하늘에서 특별한 기술과 정성으로 빚어, 인간에게 선사하는 독특한 예술품이다. 눈 결정은 대기 중의 수증기가 바로 단단한 얼음으로 변할 때 만들어진다. 별 모양의 6각 대칭 결정들이 한데 엉켜 꽃송이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아름다운 눈 오는 경치를 만들어낸다. 셀 수 없이 많은 눈송이 가운데 똑같은 모양은 하나도 없다고 한다. 가을걷이가 끝난 뒤면 으레 황량해지던 들판에서 나고 자란 나는 일찍이 눈과 친해질 수 있었다.

아침부터 몰아치는 눈보라가 하루내 계속된다. 거세던 바람도 이따금씩 약해지고, 간간히 멈추기도 한다. 넓은 들판에서 바람을 탄 눈은 춤을 추면서 옆에서 달려든다. 그러다가 바람이 그치면 다시 위에서 내린다. 눈보라 속을 두어 시간 동안 추운 줄도 모르고 쏸다니다가 손발이 얼어 집에 돌아오면, 걱정하시던 어머니가 서둘러 방으로 떠밀어 넣고는 했다. 눈 내리는 들길을 더 걷지 못한 아쉬움에 젖다보면 어느 사이 눈꺼풀이 한 집이 된다.

눈 중에서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눈은 함박눈이다. 세차게 불던 바람도 자고 사방이 그저 적막한 한겨울 늦은 밤, 어디선가 사각대는 소리가 자꾸만 들리는 것 같아 창문을 열어보면 벌써 서너 치나 쌓인 눈이 계속 내리고 있다. 그런 밤이면, 다음 날 아침 눈길에 첫 발자국을 남겨볼 생각에 잠을 설친다. 무등산자락에서 살 때다. 무료한 주말의 오후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굵고 탐스러운 함박눈이 쏟아진다. 0도 안팎의 기온에서 쏟아지는 함박눈. 친구에게 전화하고, 전망대에 오른다. 무릎까지 눈에 파묻히며 내려오다 보면 세상이 온통 눈에 덮혀 은세계를 이룬다. 이런 때 마시는 술은 취하지도 않는다. 귀가 길의 나를 눈송이가 산뜻하게 깨워준다. 함박눈이 내린 뒤의 푸근하고



평화로운 정경을 나는 사랑했다.

지리산 천왕봉의 눈 덮인 경관은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렵다. 숨을 쉴 수 없을만큼 현란한 모습, 세상 모든 것과 단절된 새하얀 풍경이 경이감 이외의 다른 모든 감각을 마비시켜버린다. 고사목들의 애처로운 모습이 삶의 고난을 떠올려주기도 하지만, 적막하면서도 각별한 아름다움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눈 덮인 지리산 상봉의 겨울 광경은, 어느 가을날 지리산 상봉에서 내려다본 운해雲海와 함께 신비였다. 그 광경들이 떠오를 때면 나도 모르게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든다.

생애의 겨울을 벌써 맞이한 나는, 이 모든 일들이 이제 꿈만 같아 회상에 잠기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내가 사는 엘버커키는 건조하기로 이름 나 겨울에 눈을 보는 일조차 흔치 않은 곳이지만, 아주 드물게 함박눈이 쏟아져 그때마다 내 가슴은 한없이 설렌다. 뒷뜰의 나무들이 눈에 덮여 새하얗게 변해버린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둔다. 옛날을 추억하면 그때 맛보던 행복감을 다시 맛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래 전에 즐기던 눈 오는 광경이며 눈 덮인 풍경과 함께 소중히 간직한다.

■

## 페이스북은 어떤 것인가?



로스 루나스에 세워질 페이스북 데이터 센터의 조감도

작년 인터넷 기업체가운데 큰 회사에 속하는 페이스북이 뉴멕시코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보도에 이어 10월11일 알버커키 남쪽 위성도시라 볼 수 있는 로스 루나스(Los Lunas)에서 페이스북 데이터 센터 기공식(Groundbreaking)이 거행되었다. 첫 단계 공사에 투자 규모는 2억 5천만 불이라고 하는데 이는 1993년 리오란초에 있는 인텔사가 공장 건설로 18억 불을 투자한 이후로 뉴멕시코가 유치한 가장 큰 투자이다.

금년 2월1일에는 페이스북 회사의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30 메가 와트의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 에너지 발전시설을 건설할 회사로 뉴멕시코에 있는 어포다블 솔라(Affordable Solar)회사가 선정되어 3천7백만 불에 계약이 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규모의 전력은 약 1만가구의 소요 전력에 비교할 수 있다. 페이스북 회사의 투자는 로스 루나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반가운 소식들이다.

이번호에서는 “광야의 소리” 독자 여러분을 위해 페이스북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페이스북은 컴퓨터나 휴대폰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는 이미 잘 알려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이지만 컴퓨터나 휴대폰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아서 페이스북을 잘 모르는 독자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소개한다.

### 페이스북은 무엇인가?

페이스북(Facebook) 단어 자체를 번역 하면 ‘얼굴을 모은 책’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 용어는 미국 대학에서 신입생들의 학교 적응을 빨리하도록 돕기 위해 학생들의 얼굴을 모아놓은 페이스북이라는 책을 만들어 나누어 주는데서 그 이름을 착안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인터넷에서의 “페이스북”(한국에서는 줄여서 “페북”이라고도 한다)이라 하면 사람 얼굴을 보여준다는 의미 보다는 개인의 생각이나 친지에게 알리고 싶은 사진이나 동영상 올리는 작은 홈페이지라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전문용어를 쓴다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웹사이트 가운데 하나라고 하면 더 정확하다. 편지나 전화로만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던 생활 스타일이 점차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는 추세를 볼 수 있다. 미국은 특히 큰 나라이고 보니 멀리 흩어져 사는 가족이나 친구가 많다. 전화를 걸려면 상대방이 사는 곳의 시간대를 고려해야 되는 불편이 있다. 이런 시간대에 구매 받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페이스북은 편리한 통신도구가 되어 가족이나 친구를 가깝게 해주고 소통을 잘 할 수 있게 해 준다.

### 페이스북 회사 설립 과정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는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이었다. 페이스북을 만든 시기인 2004년 3월 당시 그는 19살이었다. 처음 만든 페이스북은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들만 사용 할 수 있었으나 그 뒤 스탠퍼드, 콜롬비아, 예일

대학까지 영역을 확장한 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학, 고등학교까지 영역이 확대되었다. 그 이후로 회원 영역을 넓혔으며, 마침내 2006년 9월에는 이메일주소를 가진 사용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74개국 언어를 지원하면서 전 세계로 뻗어가게 되었고 2016년 12월에 와서는 페이스북의 월사용자가 17억4천만 명이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85% 이상의 사용자는 미국이나 캐나다가 아닌 외국이라는 점이다. 페이스북은 미국의 기업체라기보다는 글로벌 기업체로 성장한 것이다.

페이스북 데이터센터는 오리건주를 위시해서 아이오와주,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스웨덴에 있고 현재 건설 중인 것이 뉴멕시코 외에 텍사스주와 유럽의 아일랜드에 있다. 로스 루나스에 짓고 있는 데이터센터는 페이스북의 7번째 데이터 센터가 된다. 국내 회사는 14곳에 산재해 있고 해외지사는 35개국에 나가있으며 직원 수는 1만7천명이다. 본사는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지역 북쪽에 있는 멘로파크에 있다.

### 페이스북의 기능

페이스북은 서비스 기능이 고정되어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웹사이트가 아니라 개선되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면서 발전되어가고 있는 웹사이트다. 지난 2월 17일자 알버커키 저널 기사를 보면 페이스북에서 추가되는 기능으로 직장 알선을 돕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해서 기존의 LinkedIn에서 하고 있던 같은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한다.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기능만을 아래에 소개한다.

### 뉴스피드(News Feed)

페이스북을 열면 소식을 보여주는 뉴스피드가 나타난다. 친구가 올린 사진이나 글 또는 내가 관심 가질 만한 뉴스 기사 같은 것이 올려진 공간이다. 다른 홈페이지와 다른 점은 여기 올라간 게시물은 내 취향에 맞추어 편집이 됐다는 점이다. 내가 ‘좋아요’를 클릭한 일이 있는 게시물과 관련되는 기사나 사진과 나와



친구로 맺어진 사람이 올린 게시물 등을 근거로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알고리즘(계산/연산법)에 의해서 내게 보여줄 소식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치되어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소식이 많이 오고 어떤 소식이 적게 오는가는 어느 정도는 나 자신이 어떤 소식에 ‘좋아요’를 클릭 하느냐에 따라 좌우되기도 한다. 만일 원하지 않는 유형의 소식이 나올 때는 상단에 있는 v 표시에서 ‘게시물 숨기기’를 클릭 해주면 다음 기회에 같은 유형의 소식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줄여줄 수 있고 반대로 같은 유형의 소식을 더 많이 보길 원하면 ‘페이지 좋아요’를 클릭 해주어서 페이스북 알고리즘에 이를 반영 시켜주면 계속 같은 유형의 소식을 더 많이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 타임라인(Timeline)

페이스북 사용자 자신의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올리는 공간을 말한다. 나의 생각을 적은 글 또는 내가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려놓는 공간인데 여기에 올린 것은 친구들에게 공개되는 게 보통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공개 되는 것은 아니며 게시물 올릴 때 공개 범위를 선택 할 수 있다. 자신만 볼 수 있게 하든지 친한 친구 또는 가족에 한해서만 볼 수 있게 하든지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게시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열됨으로 타임라인이란 이름이 붙었다. 그러나 간혹 특정 게시물을 시간의 순위를 벗어나 상위에 고정시킨다든지 어떤 지정된 시간대로 이동시킬 수도 있게 하고 있다.

## 페이지(Page)

페이스북은 가입시 성별, 생년월일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이는 사람만이 실명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슷한 트위터(Twitter)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는 이점에서 크게 다른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단체나 기관의 이름으로 페이스북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페이스북 가입자가 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게 하여 사람이 아닌 단체나 기업을 대표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어떤 주제 또는 관심사 또는 어떤 브랜드의 상품 등을 주제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했다.

## 광야의 소리 페이스북 페이지

광야의 소리가 온라인으로 전달되고 있으나 두 달에 한번 발행됨으로 자주 독자들에게 소식을 전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작년 1월부터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다. 일정수의 ‘좋아요’ 클릭을 받아서 페이지 이름을 @voiceofnm으로 정했고 인쇄된 ‘광야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 기간 중에도라도 뉴멕시코 한인 여러분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게시물을 기회가 있는 대로 올리기 시작했다. 페이지를 운영하는 관리자에게만 보여주는 인사이트(Insights)란 창이 있는데 이곳에 들어가 보면 페이스북이 얼마큼 독자에게 전달되는지 또는 독자가 게시물에 참여해서 클릭했는지를 알려주는 통계자료가 제공된다. 광야의 소리 경우 인기있는 게시물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니 지난 해 11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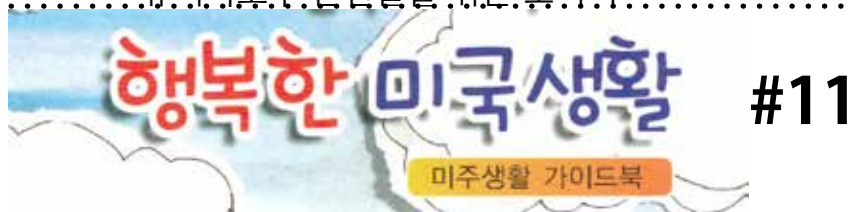
있었던 한인회 김지 축제 때 올린 한국학교 어린이 춤을 포함한 사진 게시물이 전달 범위 141에다가 게시물 클릭수가 106회로서 클릭수치에서 최고 기록을 세웠다. 서유경 음악 교사 인터뷰 기사 게시물은 클릭수는 15으로 작았으나 전달범위에서는 181 명으로서 최고치를 보였다. 게시물의 내용이 다수의 관심을 끄는 주제일 때 도달범위와 클릭수가 올라가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었다. (광야의 소리 페북 주소는 : [www.facebook.com/voiceofnm/](http://www.facebook.com/voiceofnm/) 이다 )

## 교회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페이스북은 2012년 개설한 이래 5년 동안 받은 ‘좋아요(Like)’ 클릭수 누계는 283이 되고 3개월에 10 개정도의 비례로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통계에서 전달범위가 제일 높았던 게시물은 작년 성탄절 교회행사 게시물로서 229명에 전달 (참여도 38)이었고 참여도가 가장 높았던 게시물은 지난 2월12일 새가족 환영회 소개로서 참여도 클릭수가 261로 최고치(전달범위는 117) 였다. 교회 홈페이지가 따로 있지만 매주 일어나는 행사나 소식을 업데이트하기에는 인력과 시간 소모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 실정에서 페이스북의 페이지 관리는 간단하고 짧은 시간 안에 손쉽게 이루어 질 수 있고 게시물에 의한 피드백 반응을 즉시 볼 수 있어서 페이스북 페이지는 교회나 비영리 자선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생각된다. (연합감리교회 페북 주소는 : [www.facebook.com/kumcabq/](http://www.facebook.com/kumcabq/) 이다 )

## 페이스북의 전망

페이스북이 전 세계로 확장 되어 나가고 있으나 모든 나라에서 환영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같은 나라에는 페이스북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도 산발적이지만 거짓 뉴스가 게시되어 사회를 혼란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계속 페이스북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페이스북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최근에 발표한 글(앨버커키저널 2월17일)에서 나라와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글로벌 세계를 더욱 더 연결하는 사회기반 구축에 페이스북은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커버그는 나라와 나라가 고립되어가며 기존의 사회조직들 예를 들면 교회라든지 각종 사회단체 조직이 약화되어가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감정과 정신적인 욕구를 지원해주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현실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건전한 글로벌 사회를 구축해나간다는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페이스북은 닫힌 문을 열고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어 건전한 사회로 발전하는 일에 기여하길 원한다는 것이다. 회사의 내년도 수익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를 걱정하는 근시안적 기업인이 아니라 글로벌 사회와 페이스북의 5년 10년을 내다보는 거시적 비전을 가진 기업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의 지난 10년 동안의 성공적 기업실적이 보여 주었듯이 페이스북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어 나갈 것이 분명해 보인다. (글: 편집부 2017.2.21) ■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출판한 '견우와 직녀의 행복한 미국생활(부제:미주 생활 가이드북)'은 재미 동포에게 필요한 이민, 교육, 의료, 연금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본지는 연속 시리즈로 가이드북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4년 일리노이주에서 출판된 자료임으로 2017년 뉴멕시코에서는 맞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편집부)

## 2-3 메디케어 (Medicare)

최심청씨는 최근 들어 부쩍 이곳 저곳 아픈 곳을 호소하는 남편 김길동씨 때문에 걱정이다.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전립선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의사를 보고 진단을 받고 싶지만, 이민을 온 이후로는 한국에서처럼 국민 의료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미국에서, 어디 아픈 곳이 있어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내왔다. 일흔이 훌쩍 넘은 지금은 젊은 시절처럼 보험이 없다는 핑계로 그냥 방관하기는 더 이상 힘들 정도로 두 사람이 많이 쇠약해졌다. 김길동, 최심청씨 부부보다는 몇살 어리지만 그래도 함께 나이 들어가는 처지인 교회 친구 이운달, 조평강씨 부부는 은퇴를 하고 난 이후, 직장 건강 보험이 없음에도 정기적으로 주치의를 만나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심청씨는 참다 못해 동생처럼 지내는 교우 조평강씨에게 물어보기로 작정을 하고 전화를 했다. “동생네는 무슨 수로 그렇게 의사를 자주 봐? 바깥 선생님 직장 보험이 그렇게 오래 가나? 우리 집 양반이 요즘 들어 부쩍 약해진데다가 자꾸 이곳 저곳 아프다 하니 의사를 한 번 보고 싶은데, 우리가 뭐 여유가 있어 펍씩 현금을 쥐 가며 병원을 갈 수가 있어야지, 동생네는 어찌 하나 싶어 물어 보는 거야.” 조평강씨는 자신과 남편이 가지고 있는 메디케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다. “형님, 우리는 집 양반이 미국에 와서 정년 퇴직을 하기 전까지 세금 보고를 하며 일을 한덕에 65세가 되니 메디케어라고 보험을 줘서 그덕에 병원을 다니죠. 집 양반 덕에 저도 배우자라고 65세가 되니 똑같이 메디케어를 주더군요. 그런데 그게 싼 게 아니에요. 매달 프리미엄 내지, 약보험 값 내지, 뭐 20% 보험이라나 그거 따로 내지, 우리 두 내외 한 달 보험비만 약 500불 가량이 들어요. 하기가 우리처럼 어중간 하지 않고 아예 나라에서 받는 연금이 적으면 메디케이드라는 주 정부 도움을 받아서, 들어가는 돈이 없더라고요. 형님네 지난번에 생활 보조금 받도록 도와 주신 사회 복지사에게 한 번 여쭙 보지 그래요?”



충당됩니다. 또한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지불하는 파트 B의 월 보험료 역시 메디케어 재정비에 포함됩니다. 메디케어 신청은 사회 보장국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가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메일을 통해 종합적 안내를 해 드립니다.

메디케어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1) 병원 보험 (Part A)

병원 또는 전문 간호 시설 입원 치료 (병원 입원후에 이어지는), 몇몇 가정 간호 및 호스피스 간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병원에 1일 - 60 일 입원시, 공제금 (2013년의 경우 \$1,200) 을 내시고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공동 부담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61 일-90일 동안 병원에 입원 하셨을 경우에는 공동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2013년 1일/\$252), 전문 간호 요양 시설에는 1일-20일 기간 동안 머물 경우 본인 부담금 없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메디케어 병원 보험 (Part A)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 사회 보장 수당을 받고 있거나 수혜 자격이 있는 분 ; 또는
- 철도 은퇴자 협회로 부터 수당을 받고 있거나 수혜 자격이 있는 분; 또는
- 배우자가 무료 메디케어 병원 보험 자격이 되는 분
- 본인 혹은 배우자 (생존 또는 사망, 이혼한 배우자를 포함) 가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한 정부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분; 또는

### 전문가의 한마디

#### 메디케어 (Medicare)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인 분들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제공하는 건강 보험 프로그램입니다. 장애, 영구적 신장 부전, 또는 근위축성 측방 경화증 (루게릭병)을 갖고 있는 분들을 포함해 65세 미만의 특정인들도 메디케어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의료 비용 부담을 덜어 주지만 모든 의료 비용이나 장기간 치료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메디케어는 근로자들과 고용주들이 지불하는 근로세의 일부로 재정이



- 사망 자녀의 피부양 부모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신청은 65번째 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위 자격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월 보험료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메디케어 병원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병원 보험 가입은 지정된 등록 기간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일반 등록 기간은 매해 1월 1일 - 3월 31일 입니다.

65세 이하이며,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메디케어 병원 보험에 무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24개월동안 사회 보장국으로 부터 장애인 수당을 받고 있는 분; 또는
- 철도은퇴자 협회로 부터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으며 특정 조건에 부합되는 분; 또는
- 루게릭병 (근위축성 측방 경화증)이 있어 사회보장 장애 급여를 받는 경우; 또는
-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한 정부(관련) 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사회 보장 장애자 프로그램 조건에 부합하는 분
-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한 정부 (관련) 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한 분의 자녀나 이혼한 생존 배우자를 포함, 50 세 이상의 생존 배우자로 사회 보장 장애자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분
- 신장 질환으로 신장 투석 유지를 받고 있거나 신장 이식 수술을 받는 경우

## 2) 의료 보험 (Part B)

병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사 진료와 기타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 및 의료용품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무료 메디케어 병원 보험 (파트 A) 유 자격자는 월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메디케어 의료 보험 (파트 B)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수혜자는 더 높은 월 파트 B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65세 이상으로 병원 보험 가입 무료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 중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비시민권자로서 현재 미국 체류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병원보험없이, 의료 보험 (파트B)에 유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신규 등록 자격인 65세가 되어 무료 메디케어에 등록을 하시더라도 직장 건강 보험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월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의료보험 (파트B) 신청은 직장 건강 보험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 3)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Part C)

메디케어 Part A 와 Part B 에 가입된 분들은 본인들의 모든 건강 간호 서비스가 Part C 산하에서 운영되는 하나의 공급기관을 통한 수령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민간 회사가 제공하며 메디케어가 승인합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시면 메디케어가 보장하는 일 수 (1일 -60일)를 사용한 후 추가로 몇 일을 더 병원에 있는 경우, 메디캡 보험 (추가 보조 보험)의 혜택처럼 많은 부분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 보장하기 때문에 메디캡 보험을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 메디케어 관리 보호 플랜
- 메디케어 우선 공급자 기관 (Primary Provider Organization, PPO)
- 메디케어 무료 서비스 플랜
- 메디케어 전문 플랜

신규로 메디케어 자격이 되는 분들은 자신의 최초 등록 기간 (65세 생일 전후 3개월)에 또는 매년 10월 15일 - 12월 7일 사이의 연례 조정 선택 기간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발효일은 다가오는 해의 1월 1일 입니다. 일부 상황의 경우 특별 등록 기간도 있습니다.

## 4)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Part D)

메디케어 병원보험 (파트 A), 의료보험 (파트 B) 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파트 C) 을 갖고 계신분은 처방약 보험 (파트 D)의 자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로 메디케어의 자격이 되는 분들은 보통 처음 등록기간 (65 세 생일전후 3 개월 이내)에 처방약 보험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 가입을 미루고 나중에 신청하실 경우에는 벌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벌금은 처방약 보험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해서 내게 됩니다. 단 메디케어를 받으신 후에도 일을 하셔서 직장 보험을 통해 처방약 혜택을 받으시는 경우나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과 상응하는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을 미루어도 벌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은 민간 회사가 제공하며 매달 월 보험료를 납부 하시게 되는데 소득이 높은 분들의 경우에는 더 높은 월 파트 D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반면 소득이 적은 분들의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 (2014 1인 월 998불, 부부 월 1336불) 자격에 해당될 경우 연 공제액, 월 보험료 및 처방약 공동 부담액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메디케어 자격이 되시면서 다음 중 한 조건에 해당되실 경우에는 따로 신청을 하시지 않으셔도 자동적으로 자격이 되십니다.

- 처방약이 보장되는 메디케이드를 갖고 계실 경우
- 생활 보조금(SSI)를 받고 계실 경우
- 주정부로 부터 메디케어 보험료 보조를 받고 계신 경우

처방약 최초 등록 기간이후 등록 또는 보험회사 변경을 할 수 있는 연례 조정 선택 기간은 매년 10월 15일 - 12월 7일 입니다. 등록 발효일은 다음 해 1월 1일입니다. 일부 상황의 경우 특별 등록 기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 저소득 메디케어 수혜자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메디케어 보험료, 공제금, 개인 부담금 및 기타 의료 비용을  
>> 16페이지로 계속 >>

## 말썽꾸러기, 암 덩어리 #2

지난호에 이어서 연속되는 글입니다(편집부)

김준호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장로



내가 말하는 몸안에서 우리들을 못살게 구는 말썽꾸러기, 암덩어리는 사실 정말로 무서운 병종의 병이다. 암은 우리들이 생각하는대로 쉽게 고칠수 있는 병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포기할수도 없는 병이기도 하다. 암 하면 내가 나성에서 바쁘게 공부를 할때에 있었던 안타까웠던 일이 가끔 생각난다. 나는 동양선교교회가 세워질때 임동선목사님과 함께 창립멤버로 교회일도 보고 TRW Semiconductor 에서 일도하고 아주 분주하게 지냈다. 그때 성가대 총무를 맡고 있던 청년은 아침 일찍이 차없는 성가대원들을 pick up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나중에 안 사실은 일년에 만마일을 뛰었다고 했다.

그는 Wienerschnitzel 가게를 사가지고 운영하면서 밤 11시까지 가게를 돌보고 주말에는 교회 일을 했는데 가끔 아랫배가 아팠다고 한다 하루 이틀 있으면 아픈증세가 사라져서 별거 아닐거라고 생각하고 병원엘 가지 않았었다 그런데 어느날 같은 부위에 정말 참기 어려운 통증이 와서 병원응급실로 갔었다고 한다. 그런데 검진결과 Pancreatic cancer(췌장암)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급히 수술을 시도했지만 암 덩어리가 많이 퍼져서 그것들을 제거하는것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었다. 가족은 물론이요 많은 교회 친구들이 이소식을 듣고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했다. 어떻게 이런 신실한 성도에게 이렇게 무정한 고통을 주느냐고 말이다. 애석하게도 그 성도는 몇달후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 일을 경험하고는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을 경험하면 곧장 의사를 찾아야 되겠다는 것이다. 이런 비보가 알버커키에서도 또 일어났다. 그때의 악몽을 되새기는것이기 때문에 그이야기는 접어두고 이끔직한 암을 어떻게 대처할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지금은 현대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있다. 그중에 하나인 생화학이 눈에 띄게 변하는데 내 책에서도 언급한 U. of Nebraska 의 Denham Harman 박사는 사람의 노화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Free Radical Theory of Aging" 이라는 이론을 1954년에 발표했는데 처음에는 그이론을 잘 이해 하지 못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는 정평 있는 이론으로 인정 받고 있다.

활성산소 (Free Radical, FR) 란 보통 산소 분자는 외각전자가 쌍으로 있는것이 원칙인데 인체내에서 신진대사가 일어날때 또는 에너지를 만들때 외각전자 하나를 잃어 버려 FR 이생산 되는것이다. 이 FR은 잃어버린 전자를 찾아서 아무놈의 전자를 허락없이 빼앗는 일을 한다. 막 말로 하면 전자 하나를 도둑질 하는것이다.이 FR 은 반응력이 아주 강해서 인체내에서는 암도 만들고 여러가지 질병을 야기시키게 된다.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

못하는 신비중의 하나는 어째서 사람이 사는데는 산소가 절대 필요한데 또 사람이 노화 되는것도 역시 산소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다시 말하면 보통산소는 사람에게 생명력을 주고 활성산소는 그 생명력을 깨는 역할을 한다고 알면 된다. 인체내에서 이 활성산소의 행패는 계속 일어나서 결국은 생의 종지부를 맞게 만든다.

자 이제부터는 이 지독한 활성산소를 어떻게 대처할것인가를 내가 아는대로 이야기 해 보려고 한다.

내가 몇차례 말했듯이 인체는 젊은 사람은 70 % 가 수분이라고 한다 그런데 노인들은 수분량이 50 % 이하로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노인들은 특별히 물 섭취에 신경 써서 탈수 현상이 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줄 안다. 이 수분의 산도가 크게 건강을 좌우하는데 알칼리성 물을 늘 마셔서 산도를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 pH가 5.3 이나 그근방의 산도가 될때 암의 발생율이 아주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반산화제 (Antioxidant, AO) 가 있는데 이성분은 산화되는것을 억제한다. 다행이 우리가 늘 먹는 과일과 채소에는 많은 AO 가 들어 있어서 잘 챙겨 먹으면 된다. 무지개 색깔이 몇개라구요? 일곱색갈인데 과일과 채소도 여러가지 색깔있는 것들을 섞어 먹으면 제일 좋다는것이다. AO 가 많이 들어 있는 과일이나 채소를 먹어서 AO 가 체내에 많이 있으면 체내에서 설치며 난동부리는 FR 들에게 일어버린 전자를 무료로 선사해서 FR 의 난동을 막는다. 비타민중에도 AO 가 들어 있는것이 판매되고 있지만 그 흡수율은 음식에 비해서 낮기때문에 음식을 권한다.

영양사가 추천하는 AO 가 많다는 음식들이 여러종류가 나와 있는데 그중 하나만 소개 한다.

1. Prunes (서양 자두)
2. Raspberries (나무딸기)
3. Cloves (정향)
4. Strawberries (딸기)
5. Cranberries (넉출월굴(-越橘), 크랜베리)
6. Walnuts (호두)
7. Blueberries (블루베리)
8. Pinto Beans (강낭콩, 핀토빈)
9. Blackberries (검은 딸기, 블랙베리)
10. Small Red Beans (팥, 스몰레드빈)

잘 섞어 드시고 행복한 천로역정의 길을 힘차게 가시기 바랍니다. ■



##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1-10 구원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의 선물

현용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원로목사



“(1)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지, (4)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10)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니라.”

과거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알면 알 수록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더욱 잘 알게 됩니다. 시편 51편5절에 “내가 죄악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담의 원죄 아래 태어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인이면 당연히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도 모르고 자신들이 가장 잘 사는 줄로 착각하며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대신 불쌍히 여기시고 올바르게 살아갈 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우신 은혜와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세상 만민 중에서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어 피 흘려 속죄해야 하는데 우리 대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피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대신 우리가 용서 받게 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돌아보면 내 맘대로 살 때에 사실 내 맘대로 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죄에 묶여 이리 저리 끌려 다니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별별 짓을 다하고 살다 보니 평안한 날이라곤 찾아 보기 힘들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썩을 대로 썩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우리의 지친 모습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어 있던 마음에 감동이 살아 나면서 이 모든 감옥에서 완전히 풀려 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말씀)을 듣고 있다가 믿을 수 없었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한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 지며 평안해 지면서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이심을 믿고 영접하였더니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는 명령입니다(엡2:10) 바울은 디모서 2장14절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거저 받았으니 땅에 묻어 두거나 마음 속에 감추어 두지 말고 나누는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들이 되어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11-3:22 교회론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차별없는 구원

“(11)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15)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유대인, 이방인 혹은 흑인, 백인 가리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고루 고루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교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약속을 그들에게 먼저 주신 것은 세상 만민에게 전파하고 그들을 깨우쳐서 세상 모든 민족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경배 하도록 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맡기셨는데 그들은 악한 일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말았습니다. 자기 민족만이 선택 받은 우수한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천하고 저열한 민족이라고 개 취급까지 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한 갑질 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4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라고 유대인 동족 전도를 포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아시아 지방을 비롯하여 지중해 건너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 그리고 멀리 로마에 이르기 까지 세계 도처에 이방인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이 에베소에서는 3년간이나 머물면서 인근 각 처에 여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3장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날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 놓았던 휘장(담)이 위에서 부터 아래로 찢 갈라졌습니다. 막혔던 담이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후 그동안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 막았던 담도 없어졌고, 인간과 인간을 갈라 놓았던 담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상징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끼리도 서로 원수지간으로 살아서는 안된다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 전 부터의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27절에서 예수님은 “평안(평화, 화평,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극히 편파적인 평화입니다. 서로 조금만 달라도 곧 깨어지는 불안한 평화입니다.

영원한 평화는 오직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안에 있는 평화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만 있는 평화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도 이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없고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하여 교회가 세상과 분리된 존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주적 교회로 성장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교회를 원하십니다(엡 1:10). ■

## 메디케어 (Medicare) 13페이지에서 계속



지불하기 힘든 분들을 돕기 위해 주정부는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은 각 주가 정한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되지만 기본적으로 반드시 파트 A (병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메디케어 가입 신청

사회 보장국으로 부터 은퇴 연금 또는 장애 연금 또는 철도 은퇴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신규 메디케어 자격인 65 세가 되기 몇 개월 전에 사회 보장국으로 부터 안내 통보와 함께 메디케어 파트 A 및 B 에 자동적으로 등록 됩니다. 아직 은퇴연금을 받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65세가 되는 해의 초기 등록 기간을 이용 하셔야 합니다. 초기 등록 기간은 65세가 되는 생일달을 포함해 전후 3개월을 합해 총 7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메디케어 일반 등록기간인 매해 1월 1일-3월 31일에 메디케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파트B 월 보험료는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케어 파트 B에 등록하지 않았던 각 12개월 기간에 대해 10% 증가합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파트 C) 을 갖고 있는 경우, 1 월 1일부터 2월 14일 사이에 본인의 플랜을 떠나서 원래의 메디케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또한 2월 14일 까지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으며 보험은 보험회사가 신청서를 받고 나서 다음 달의 1일에 시작됩니다.

출처: [www.socialsecurity.gov](http://www.socialsecurity.gov)

최심청씨는 조평강씨가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란다. 평소 조평강씨 내외는 메디케어를 통해서 모든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받고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조평강씨 말을 들으며 이런저런 궁금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동생, 20% 보험이 뭐야?” 조평강씨는 얼마전 남편 이은달씨에게 들은 것을 떠 올리며 설명한다. “형님 메디케어가 의료비용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100% 비용부담을 하지는 않아요. 입원 치료나 큰 수술을 하고 난 이후 의료비가 발생하면 공제금에 개인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이 개인 부담금이 보통 20%예요.

“이런 큰 의료 비용 발생시를 대비해 드는 보험을 영어로



Supplementary insurance, 우리 말로는 추가 보조 보험, 혹은 우리끼리 20% 보험이라고 부르죠.” “아 그렇군.” “우리도 65 세 때 메디케어 신청을 하고 난 후 애 아빠가 여기 저기 보험 회사를 알아 보고는 현재 보험 회사 플랜에 가입을 했어요. 그때 들었기에 망정이었죠. 65세가 훌쩍 넘어버리고 나서는 이래 저래 들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월 보험료도 훨씬 비싸고 그렇지 않아도나이가 한 살 두 살 더 먹어가면서 월 보험료가 올라가는데...매달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맘이야 편해요. 작년에 애아빠 전립선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덕을 봤지요. 우리는 내심 수술비와 입원비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입원 50일 한 거 공제금 내주지. 개인 부담금 내주지, 우리는 들어간 돈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 동네에 아는 사람들이나 교인들 중 메디케어 갖으신

분들 보면 꼭 20% 보험 들으라고 권해요”

### 전문가의 한마디

#### 메디케어 추가 보조보험 (Medicare Supplementary)

Medicare Supplementary 혹은 메디케어 추가 보험은 민간 운영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으로 메디케어가 도와주지 않는 의료비용 및 메디케어 의료 보험과 병원보험의 공제금, 개인부담금을 도와줍니다. 개인의 거주 지역 및 나이 그리고 제공되는 혜택에 따라 보험회사마다 보험료와 플랜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 가입전에 알아보시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교회안내는 Public Domain에서 수집된 자료입니다.  
틀린점이 발견되면 편집부로 E-mail 주시기 바랍니다.

###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류종재 목사 (505) 385-6545  
주일예배 시간: 오후 1:30 pm  
영어예배 시간: 오후 12:00 p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웹사이트: [home.kcmusa.org/disciples](http://home.kcmusa.org/disciples)

###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김재태 목사(972)-822-1239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 (626)272-1042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http://www.santafekorchurch.net)

###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45 p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11:00 am (Sunday)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5:30 am (Tue-Fri) 6:00 am (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http://www.kumcabq.com)  
[www.facebook.com/kumcabq/](http://www.facebook.com/kumcabq/)

###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신동완 파우스티노 사목회장  
장재준 안드레아 총무/기획부장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금요기도회(금,저녁)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http://cafe.daum.net/abq-catholic)

###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 클로비스 한인 순복음교회

이 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2:30pm 금요일예배: 8:00pm

###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12:00 am (한국어) 1:00 pm (Indian 영어)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등록을 원하시면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무료.

<b>알버커키</b> <b>Albuquerque</b>	<b>Shogun</b>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b>Kelly Liquors #10</b> 4312 Coors SW (505) 877-2777	<b>GEM X Imports</b>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b>한국식품점</b> <b>Korean Grocery</b>	<b>A-1 한식 Cafe</b>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	<b>Kelly Liquors #14</b>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b>J-1 Import</b>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6 (505-839-8697)	<b>주님의 교회</b>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b>A-1 Oriental Market</b>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275- 9021)	<b>Sushi &amp; Sake</b>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b>Stadium Liquor</b>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b>NEXT Clothes/Gift</b>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b>주택용자 Loan Officer</b>  <b>김미경 Mikyong Kim</b> Bank of Albuquerque Mortgage 3900 Vassar Dr. NE (Office 505-855-0586) (cell 505-379-2944) mkim@bokf.com
<b>Arirang Oriental Market</b>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b>Yummi Hous</b>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b>부동산 Realtors</b>  <b>김영신 Yong Shin Kim:</b>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b>이발소 미장원 Hair Cut</b>  <b>Hair &amp; Co(황경희)</b> 5901 Wyoming Blvd., NE (505-797-8087)	<b>고산식 Lonnie Ko</b>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b>Kim's Oriental: 2306 Morris</b> NE ABQ (505-296-8568)	<b>건축/페인트 Painting</b>  <b>1st Choice Painting</b>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b>이준 June Lee</b>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b>Hair Dynamic(Ashley)</b>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b>치과 Dental Clinic</b>  <b>Rainbow Dental</b>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b>한인 식당</b> <b>Korean Restaurant</b>	<b>공인회계사 CPA</b>  <b>MTM Accounting Service</b>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b>세탁소 Dry Cleaners</b>  <b>Barbone's Cleaners</b>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b>Matthew Lee's Hair Style</b>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b>Stewart P. Ahn 5920</b>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b>Arirang Restaurant</b>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b>리커스토어 Liquors</b>  <b>Casa Liquor</b>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b>Executive Cleaners</b>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b>Nob Hill Barber Shop</b>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b>태권도 TaeKwonDo</b>  <b>Dynamic taekwondo acad-</b> <b>emy5850 Eubank blvd</b>  <b>NE B-35 ABQ, NM 87111</b> <b>Master Jaeshin Cho(505)</b> <b>271-2000</b>
<b>Asian Pear</b> 508 Central SW, ABQ (505)766-9405	<b>MTM Accounting Service</b>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b>Kitch Cleaners</b>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b>Plance Hair Salon(Tina)</b>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b>태권도 TaeKwonDo</b>  <b>Dynamic taekwondo acad-</b> <b>emy5850 Eubank blvd</b>  <b>NE B-35 ABQ, NM 87111</b> <b>Master Jaeshin Cho(505)</b> <b>271-2000</b>
<b>Fu-young</b>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b>리커스토어 Liquors</b>  <b>Casa Liquor</b>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b>Laundromate</b>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b>Salon 123</b> 7114 Menaul NE (505-872-0301)	<b>태권도 TaeKwonDo</b>  <b>Dynamic taekwondo acad-</b> <b>emy5850 Eubank blvd</b>  <b>NE B-35 ABQ, NM 87111</b> <b>Master Jaeshin Cho(505)</b> <b>271-2000</b>
<b>Ichiban Japanese: 10701</b> Coors Rd NW ABQ (505- 899-0095)	<b>리커스토어 Liquors</b>  <b>Casa Liquor</b>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b>Laundromate</b>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b>자동차정비 Auto Repair</b>  <b>The Garage 자동차 정비</b>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thegaragenm.com	<b>태권도 TaeKwonDo</b>  <b>Dynamic taekwondo acad-</b> <b>emy5850 Eubank blvd</b>  <b>NE B-35 ABQ, NM 87111</b> <b>Master Jaeshin Cho(505)</b> <b>271-2000</b>
<b>I Love Sushi</b>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b>리커스토어 Liquors</b>  <b>Casa Liquor</b>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b>Laundromate</b>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b>자동차정비 Auto Repair</b>  <b>The Garage 자동차 정비</b>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thegaragenm.com	<b>태권도 TaeKwonDo</b>  <b>Dynamic taekwondo acad-</b> <b>emy5850 Eubank blvd</b>  <b>NE B-35 ABQ, NM 87111</b> <b>Master Jaeshin Cho(505)</b> <b>271-2000</b>
<b>Jasmine Thai &amp; Sushi House</b> 4320 The 25 Way, NE Suite 300 (505-345-0960)	<b>리커스토어 Liquors</b>  <b>Casa Liquor</b>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b>Laundromate</b>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b>자동차정비 Auto Repair</b>  <b>The Garage 자동차 정비</b>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thegaragenm.com	<b>태권도 TaeKwonDo</b>  <b>Dynamic taekwondo acad-</b> <b>emy5850 Eubank blvd</b>  <b>NE B-35 ABQ, NM 87111</b> <b>Master Jaeshin Cho(505)</b> <b>271-2000</b>
<b>Korean BBQ</b>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b>리커스토어 Liquors</b>  <b>Casa Liquor</b>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b>Laundromate</b>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b>자동차정비 Auto Repair</b>  <b>The Garage 자동차 정비</b>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thegaragenm.com	<b>태권도 TaeKwonDo</b>  <b>Dynamic taekwondo acad-</b> <b>emy5850 Eubank blvd</b>  <b>NE B-35 ABQ, NM 87111</b> <b>Master Jaeshin Cho(505)</b> <b>271-2000</b>
<b>Kim's Oriental</b> 2306 Morris NE ABQ (505- 296-8568)	<b>리커스토어 Liquors</b>  <b>Casa Liquor</b>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b>Laundromate</b>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b>자동차정비 Auto Repair</b>  <b>The Garage 자동차 정비</b>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thegaragenm.com	<b>태권도 TaeKwonDo</b>  <b>Dynamic taekwondo acad-</b> <b>emy5850 Eubank blvd</b>  <b>NE B-35 ABQ, NM 87111</b> <b>Master Jaeshin Cho(505)</b> <b>271-2000</b>
<b>Sakura Sushi Grill</b>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b>리커스토어 Liquors</b>  <b>Casa Liquor</b>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b>Laundromate</b>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b>자동차정비 Auto Repair</b>  <b>The Garage 자동차 정비</b>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thegaragenm.com	<b>태권도 TaeKwonDo</b>  <b>Dynamic taekwondo acad-</b> <b>emy5850 Eubank blvd</b>  <b>NE B-35 ABQ, NM 87111</b> <b>Master Jaeshin Cho(505)</b> <b>271-2000</b>
<b>Samurai</b>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b>리커스토어 Liquors</b>  <b>Casa Liquor</b>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b>Laundromate</b>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b>자동차정비 Auto Repair</b>  <b>The Garage 자동차 정비</b>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thegaragenm.com	<b>태권도 TaeKwonDo</b>  <b>Dynamic taekwondo acad-</b> <b>emy5850 Eubank blvd</b>  <b>NE B-35 ABQ, NM 87111</b> <b>Master Jaeshin Cho(505)</b> <b>271-2000</b>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등록을 원하시면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무료.

(505-764-1900)

## 하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 사진관 Photo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 중재서비스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 단요가 Dahn Yoga

알버키505-797-2211  
커튼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트505-286-3535  
www.dahnyoga.com

## 라스베가스 Las Vegas

## 치과 Dentist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

##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

## 종교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780 Camino Del Rex,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505)-269-0691

##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

##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성내출력: Los Alamos (505-662-9681)

##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5420)

## 리오란초 Rio Rancho

##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

##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

## 버나리요/벨렌/ 보스키팜 /로스루나스 Bernalillo/Belen/Bosque Farms/Los Lunas

## 식당 Chinese Restaurant

Bamboo Express  
143 Highway 314 SW Los Lunas NM87031 (505) 866 6888

##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

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

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

## 산타페 Santa Fe

## 손톱미용 Nails

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

##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

##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505)412-5420

##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1  
3875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2244

Kelly Liquors #2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3960

Kelly Liquors #3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3206

## 클로비스 Clovis

## 종교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

## 백화점 Mart

T-Mart  
320 B West 21st St. Clovis, NM 88101 (575)218-3764

## 식당 Restaurant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 식품 Korean Grocery

K's Oriental Food Store  
1508 Thornto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 화밍톤 Farmington

## 종교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

## 상점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 알림

광야의 소리는 광고주께서 베푸시는 후원으로 출판비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4월마다 신규 광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1년간 광고를 통해서 광야의 소리를 후원해 주실분은 voiceofnm@gmail.com 또는 신옥주 씨(275-9021)에게 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소리는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voiceofnm](http://www.facebook.com/voiceofnm)  
[voiceofnm.kumcabq.com](http://voiceofnm.kumcabq.com)

##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2017년 3/4월호

발행일: 2017.3.1.

발행인: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위원장: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 알버키엔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voiceofnm@gmail.com

(505)341-0205

**The Garage AUTO REPAIR**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2년 연속 엘버커키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문의사항 (505)352-5152



마이크 조

근무시간: M-F, 7:00am-6:00pm (토, 일 휴무)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주소: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Acupuncture & Herbs Pain Clinic**  
Holistic & Alternative Medicine

**장상순 한의원**  
Dr Sangsoon Chang  
DOM, DSOM, Dipl OM, Dipl Ch, Lac

보험회사 Authorized Providers:  
Cigna, Presbyterian, Multiplan, Optum,  
United healthcare, New Mexico health  
connection, Out of net work, Molina.

2617 Juan Tabo NE #B  
Albuquerque  
New Mexico 87112  
[www.drchang505.com](http://www.drchang505.com)

505-255-0878  
505-710-7504  
[sangsoonc@gmail.com](mailto:sangsoonc@gmail.com)

**C & M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http://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알버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 87505  
Tel: 505-988-4476



**HUONG THAO**  
**베트남 식당**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Beer & Wine  
Tues-Sat 11:00am-9:00pm  
Sun 11:00am-8:30pm

1018 B Juan Tabo NE  
Albuq., NM 87112 (505)292-8222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Lunch  
11:30-2:30 Mon-Sat  
Dinner  
4:30-9:30 Mon-Thur  
11:30-10:00 Fri, Sat  
4:00-9:00 Sun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Yummi House**  
**雅緻苑**  
Chinese Cuisine (중화요리 전문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 (505) 271-8700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 삼선짬뽕  
해물탕면 / 다섯가지 냉채  
깐풍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탕수우유 / 양장피 잡채

**metroPCS**

**앨버커키 지역**  
**MetroPCS 딜러로 모십니다**

MetroPCS는 미국내 최고의 가격 경쟁력과 폰 라인업을 갖춘 Pre-Pay Wireless 회사입니다. Cricket와 비슷한 구조이나 초 고속 무제한 T-Mobile Network로 시장을 석권합니다. 달라스에서는 10년전부터 이미 많은 한인 분들이 성공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전체 달라스 물량의 60%를 한인들이 소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분들이 새로운 Business에 참여하셔서 메트로 패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Dealer: 직접 새로운 Location을 찾으셔서 문의해주시거나 현재 운영중인 가게를 인수하셔도 됩니다.  
연락처: JAMIE KIM Tel: 505-401-9185 Email: [jamie.kim@tomorrowtelecom.com](mailto:jamie.kim@tomorrowtelecom.com)